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고후7:8-11

양약은 입에 쓰다. 좋은 말은 듣기에 좋지 않다.

좋은 말인데 현대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말 중의 하나가 회개이다.

목회 성장학: 죄와 회개 등을 말하지 말라. 성도들과 비성도들 모두에게

말씀을 듣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나, 죄, 세상, 천국, 지옥, 인생 목표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 ★★★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므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모두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개에서 시작된다. 성화도 회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벧후3:9), 구약의 대언자들, 예수님(마4:17; 9:13), 바울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행20:21)

성경 전체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겔18:23).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

배경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해야 하는가? 성도들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중생은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준다.

칭의를 받아도 옛 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죽은 것으로 처리하려 해도 육으로 인해 100% 죽지 않으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항상 실패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열심과 행위 면에서 다른 교회에 비해 뒤지지 않는 교회였다.

파당(인간 지도자), 부활, 주의 만찬, 우상 숭배 등에 따른 이단 교리는 결국 음행으로 이어졌다. 아마도 지도자의 친척, 그런데 교회가 이를 묵인했다(고전5장).

오늘날의 교회들의 특성: 헌금 많이 하고 중책을 맡으면 이런 것을 묵인한다. 목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묵인한다. 그래서 교회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다. 교회 내부에 거룩함이 없다(벧전4:17).

고린도전서: 바울의 분노의 편지

고린도후서: 음행자는 출회되고 성도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무관심에 대해 회개하였다.

바울은 고후 2장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이런 책망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밝힌다(4절). 그런데 그 음행자는 출회된 상태에서 자기의 사악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함. 그래서 고후2:6-10에서 바울은 다시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현대 교회의 문제: 징계가 없다. 성경대로 따르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교회의 징계는 항상 성도의 회복에 맞추어져야 한다(가정에서의 징계). ★★★ 우리도 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런 용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대신하여 행한다(10절). ★★★

목사 이름으로 목사가 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징계에 대해 행세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7장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행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

회개의 종류

8절: 바울의 후회, 그의 책망이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결국 선을 이루었다. ★★★

책망하는 자의 자세: 아버지처럼

9절: 바울은 그들의 아픔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에 기뻐했다.

믿는 자들의 회개, 이런 근심과 아픔은 우울증이나 절망을 가져오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죄를 치우는 회개가 생긴다.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면 어떤 것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

1.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인정하는 근심, 그분의 뜻과 소원에 따른 근심

1. 진리가 마음에 들어가 만들어 내는 근심, 예수님을 알게 됨 ★★★

2. 하나님이 보듯이 죄와 우리 자신과 마음과 행동을 보므로 생기는 근심, 다윗의 근심(시52:4)

3.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를 받는다.

4.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 을 이룬다. 회개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 구원을 이룬다. ★★★ 5. 베드로의 회개

2. 세상의 근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근심, 그분의 뜻과 소원과 상관없는 근심

1. 재산, 명예, 친구, 실망으로 인한 근심
2.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회개,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
3. 가룟 유다의 회개
4.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가 없다.
5. 그 결과는 사망이다: 우울증, 화평이 없다. 영의 고통, 육체의 사망과 영원한 사망 ★★★

회개의 증거

11절: 너희의 경우를 보라.

1. 조심하게 하였다: 유월절 이후의 무교절, 집안에서 살살이 누룩을 찾아 제거하였다(출12:18-20).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신속하게 죄악을 제거하였다. ★★★
2.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였다.
교회를 향한 비난을 깨끗이 청소해 냈다. 고의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음을 보였다. 한 사람에게 비난이 가게 하지 않았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그분께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교회가 비난 받는 가장 큰 이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3. 분개하게 하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그 죄인이 아니라 죄에 대해 분노하였다. ★★★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데서 죄가 생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보면 분노와 공포가 생긴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분노이다.
4. 두려워하게 하였다.
사람의 두려움은 올무를 가져오지만 주님의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다. 악을 미워하게 한다. 그래서 죄악을 치우게 하였다. ★★★
5. 갈망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는 열망을 일으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
6. 열심 있게 하였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요2:17). 예수님의 열심, 죄를 치우려는 열심, 바른 권고에 붙으려는 열심
7. 징계하게 하였다.
교회의 음행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렸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전5:4-5). 이것은 사랑의 징계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이다(히12:8). ★★★
8. 결백함을 입증하였다.
그들의 회개는 실제적이고 철저했다는 것이 그들의 행동으로 입증되었다. ★★★

회개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교회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마18:15-20). 교회 어른들의 역할

사역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히13:17).

그러면 죄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하는 일이 생긴다.

그 뒤에 위로와 평강과 부흥과 축복이 온다.

결론

성경의 역사: 죄, 경고, 무시, 심판 혹은 죄, 경고, 회개, 부흥과 축복 ★★★

호8:11-14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겔18:23, 32). 가장 큰 죄, 살면서 지는 죄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